

동해해수청, 속초등대 시설물 개량을 마치고 6월 27일 재개방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해 임시 폐쇄했던 속초등대를 2026년 6월 27일(토)부터 재개방한다고 밝혔다.

1957년 처음 불을 밝힌 속초등대는 2006년 전면 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으나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대 전망대와 야외 시설물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였다.

이에, 동해해수청은 3월 23일부터 노후화된 등대 전망대와 야외 계단 데크·난간대 등 시설물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6월 26일에 완료하였다.

이번 개량공사는 전망대 옥상 바닥을 석재로 교체하여 미관을 개선했으며,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대와 야외 보행데크 등 등대 시설물도 전면적으로 보수하였다.

재개방 이후 연중 무휴로 속초등대 야외 공원은 오전 9시에 개방하여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전망대 등 실내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객들에게 개방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재개방한 속초등대는 과거와 같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광명소로 자리잡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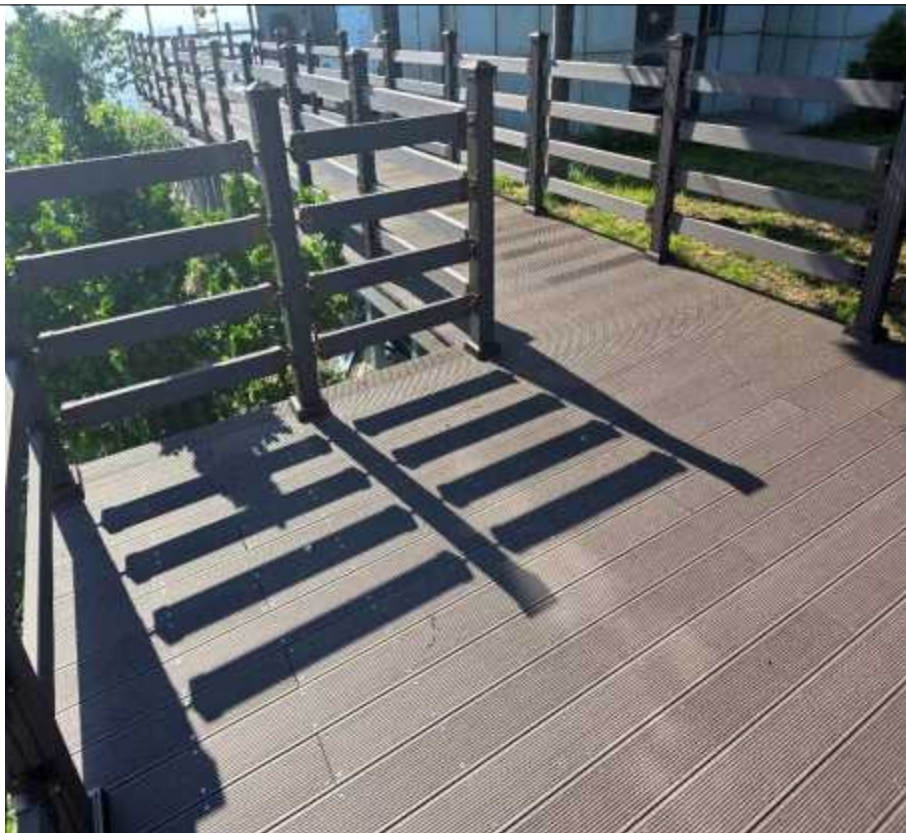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최금성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김관우 (033-520-6277)

참고

사진대지



속초등대 전망대 옥상



속초등대 야외 시설물